

鄉 土 史 料 集

第 3 號

목 차

- ◎ 鄉土의 內歷 / 3
- ◎ 鄉土人物과 孝烈 / 7
 - 1. 鄭 宗 榮 / 9
 - 2. 安 橋 / 13
 - 3. 金 福 尹 / 16
 - 4. 徐得天과 徐振鏞 / 17
 - 5. 烈女 元氏 / 18
- ◎ 鄉土의 傳說 / 21
 - 1. 브리우물의 전설 / 23
 - 2. 까막나들이의 전설 / 24
 - 3. 말바위의 전설 / 27
 - 4. 대지울의 전설 / 30
 - 5. 무난동의 전설 / 32
 - 6. 허천명 장군과 용마 무덤의 전설 / 38
 - 7. 대동문과 북성정의 전설 / 39
 - 8. 장독바위의 전설 / 41
 - 9. 원탑(圓塔)의 전설 / 43

橫 城 文 化 院

鄉 土 史 料 集

第 3 號

목 차

◎ 鄉土의 內歷 / 3

◎ 鄉土人物과 孝烈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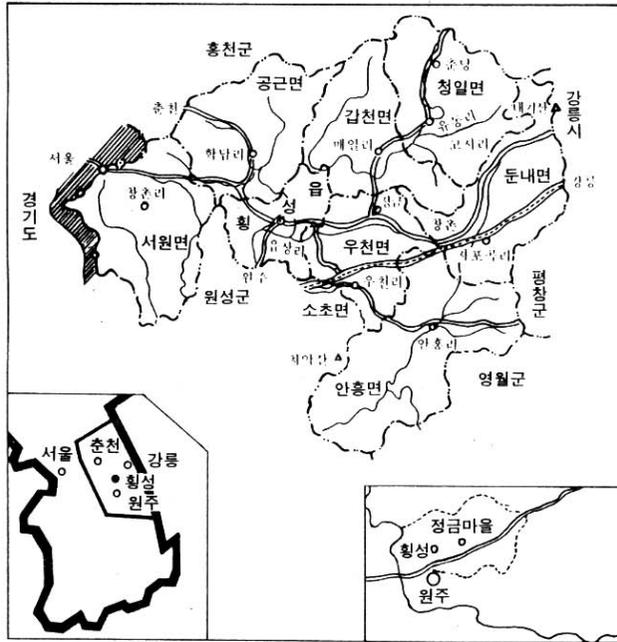
1. 鄭 宗 榮 / 9
2. 安 橋 / 13
3. 金 福 尹 / 16
4. 徐得天과 徐振鏞 / 17
5. 烈女 元氏 / 18

◎ 鄉土의 傳說 / 21

1. 보리우물의 전설 / 23
2. 까막나들이의 전설 / 24
3. 말바위의 전설 / 27
4. 내지울의 전설 / 30
5. 무난동의 전설 / 32
- ④ 6. 허친명 장군과 용마 무덤의 전설 / 38
7. 대동문과 북성정의 전설 / 39
8. 장독바위의 전설 / 41
9. 원탑(圓塔)의 전설 / 43

橫 城 文 化 院

(1) 郷土의 內歷



<지도 1> 횡성군과 정금마을

강원도 횡성군은 서울에서 125.9킬로미터, 강릉에서 111.9킬로미터, 춘천과 79.8킬로미터, 원주와 17.9킬로미터(직행버스로 20분 소요) 거리에 횡성읍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강릉간의 고속도로가 군의 동서를 관통하고 춘천-원주간의 국도가 남북으로 군의 서부를 지나며 또한 서울에서 양평을 거쳐 강릉에 이르는 국도가 놓여 있는 교통의 요지다.

횡성군은 북으로는 홍천군, 동으로는 평창군, 남으로는 원성군과 영월군, 서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인접하여 면적은 1,041제곱킬로미

터로 서단 127도 41분, 동단 128도 18분, 북단 37도 40분, 남단 37도 18분이다.

횡성군은 처음엔 '於斯買'로 불리운 듯하며 고구려에선 횡천(橫川)이라 하였는데, 이는 횡성군 내의 강이 남북(縱)으로 흐르지 않고 동서(橫)으로 흐르기 때문이라 한다.

신라시대엔 황천(潢川)이라 하다가 다시 횡천이라 했으며 고려시대엔 횡천이라 불렀다. 횡천은 홍천(洪川)과 음이 비슷하여 혼동되기 쉬우므로 조선조 태종 14년(1414년)부터 횡성(橫城)이라 칭하게 되었다.

화전(花田) 또는 화성(花城)이라는 별칭에 대하여는 조선조 인조 때에 이 인거(李仁居)의 난이 있어 일시 폐현되었던 당시에 횡성이라는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 생긴 이름으로도 풀이하나 분명하지 않다.

횡성은 삼한(三韓)시대엔 마한의 영역이었기도 한데 진한의 태기왕(泰氣王)이 신라의 박혁거세에게 패하여 횡성의 태기산으로 와서 진을 쳤다는 태기산과 갑옷을 씻었다는 갑천(甲川)의 유래가 전하여 온다.

횡성은 삼국시대 초기엔 백제의 영역이었다가 475년경 장수왕때에 고구려에 속하였다. 통일신라는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구분 하였는데 횡성을 위서한 강원도 영서지방은 삭주(朔州)라 칭하고 지금의 도지사격인 도독(都督)을 두어 다스렸다. 횡성에서 가까운 원주는 5경중의 하나인 북원경(北原京)이었고 횡성엔 도독의 직할현인 황천현(潢川縣)이 설치되었다. 후삼국시대엔 원주에 웅거 했던 양길의 세력하에 있다가 궁예가 철원에 세운 태봉국의 지배를 받았다. 고려초엔 전국이 10도로 구분된 바 강원도는 함경도의 남부와 더불어 삭방도(朔方道)였고 횡성은 삭방도의 춘천(春川)에 속하였다. 고려중기엔 전국이 5도 양계(兩界)로 나뉘었는데 강원도의

영동지방은 동계(일명 沿海濱州道) 영서 북부지방은 교주도(交州道, 혹은 東州道, 春川道) 영서 남부지방은 경기, 충청과 더불어 양광도(楊廣道)에 속하였다. 고려중기의 횡성은 처음엔 교주도에 들다가 뒤엔 양광도의 원주 관할로 되었다. 강원도라는 명칭은 조선조 태조 3년(1394년)부터며 그 행정 중심을 원주에 두었다. 그당시 횡성 현감은 중영장(中營將)을, 철원부사가 어영장, 춘천부사가 좌영장, 삼척부사가 우영장을 각각 겸직하였다.

횡성군은 현재 1읍(횡성읍) 7면(우천면, 청일면, 갑천면, 공근면, 둔내면, 서원면, 안흥면)이다. 이중에서 서원면(書院面)은 1914년에 원주의 고모곡면(古毛谷面)과 지하곡면(地下谷面)을 서원면으로 개칭하여 횡성군에 내속시켰다. 1962년에 영월군 수주면의 청림리, 월현리, 부곡리가 안흥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에 홍천군의 남면, 상창봉리가 공근면에 편입되었다.

횡성의 3횡(山橫, 水橫, 人橫)이란 산수의 세가 남북으로 흐르지 않고 동서로 흐름과 횡성사람의 자의식이 뚜렷하여 엇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탓으로 풀이된다. 횡성군의 동북방엔 태백산맥의 서록인 해발 1,261미터의 태기산이 뻗어 있으며 천도교도가 많아 격심한 항일투쟁을 벌였었다.

郷土人物斗 孝烈

郷土의 人物

◎ 鄭宗榮 (정종영)

정종영은 횡성은 물론 강원도내에서도 따를 사람이 없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선비로 화려한 관직과 경력을 가진 정치가였고 또한 강직하고 곧은 청백리였다.

정종영은 옥당승지(玉堂承旨)와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강원 평안 경상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고 6조판서(六曹判書: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두루 지낸 태백이 낳은 인물로 당쟁과 을사사화 등 내우외환 가운데도 자기직분을 다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 사람이다.

그는 초계정씨로 초계정씨가 자랑삼아 삼는 인물이며 초계정씨는 도내에 원주, 강릉, 양양, 그리고 횡성지방에 많이 살고 있다. 횡성땅에 초계정씨가 들어 온것은 조선초기에 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종영의 할아버지인 정온(鄭溫)에서 부터 조선왕조의 관계(官係)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위(偉)였고, 자(字)는 인길(仁吉)이며 호(號)는 승제(恒祭)요, 시호는 정헌공으로 1913년(중종8년)에 원주 배말에서 태어나 1589년(선조22년)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신도비와 묘소가 횡성군 공근면 공근리에 있다. 세상을 떠날때는 원성군 만중리에 은거할때로 그해여름 우찬성(右贊成)에서 물러났을 때니 평생을 관직에 머물렀고 中宗, 仁宗, 明宗, 宣宗의 四王代를 한결같이 청렴결백한 忠臣으로 일관해와 조선왕조실록에 무려 100회에 이르도록 그 이름을 남겼다.

초계정씨의 대과방목(大科榜目)이나 세보(世譜)에 실려 있는 各祖의 神道碑文 시기에는 仁宗 明宗대에 걸친 대륜(大尹) 소륜(小尹)의 싸움인 을사사화나 宣祖때의 東西黨爭의 틈바구니에서 난국을 무난히 극복해 나간 인물로 칭송을 받고 있는데 그의 金安國의 門人 이며 김안국은 기묘명현(己卯命賢)으로서 조광조와 더불어 정통 士林인데

김안국의 門人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그의 官風이 道學을 펴는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은 학문인 동시에 학문을 통하여 經世하려는 행동철학이다. 도학에 심취했던 그는 모든 일에 한계를 분명히 해 國事를 돌볼때 王室 친척들과 휩쓸리지 않았고 언제나 국가관을 뚜렷이 가지고 행동하여 친척간의 싸움인 을사사화 동서분당의 파란을 극복하고 四代王祖에 대해 충성을 다할수 있었다.

그가 당쟁에 초연할뿐만 아니라 청렴한 관리였다는 점이 돋보이는데 강직한 문장가에 의해 편찬된 中宗實錄에 가담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가 만년에 원주에 은거해 있을때 나라에서 年金을 보내니 관을 떠난 사람이 녹을 받을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그의 行狀을 쓴 영의정 심수광이나 신도비문을 쓴 좌의정 이단하가 함께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조정랑 당시 농촌에 유랑민이 속출하고 있는 문제를 놓고 王앞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을때 그는三公(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失政을 크게 꾸짖어 듣는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는데에서도 그의 강직성을 알수 있으며 당시는 유명했던 농촌의 굶주림과 농민의 반란이 극심하던 明宗代로서 문정왕후와 尹元衡의 집권하에서 감히 하기 힘든 直言으로三公이라면 자기의 생명이라도 빼앗을수 있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의 상관들이 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기 어려운 일로 그는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지방으로 쫓겨나기도 여러번 했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明宗때 경상도 관찰사로 갔을때 일로 그당시 세도가 당당하던 문정왕후와 尹元衡과 맞서 싸운일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문정왕후의 명을 받은 승려들이 仁宗의 태봉이 있는 산에서 벌채를 하는 것을 모조리 처단하여 왕후와 정면으로 맞서게 된것이다.

仁宗은 明宗의 異腹형으로 모두 中宗의 아들인데 仁宗은 장경왕후의 아들이고 明宗은 문정왕후의 아들로서 배후에 尹任, 尹元衡이 있어 전

나를 大尹이라 하고 후자를 小尹이라 부르며 이 두파의 대립은 심각하여 결국 大尹派를 숙청한 을사사화로 까지 번졌으며 그후 문정왕후와 윤원형의 권세가 8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던 것으로 이러한 판국에 정종영이 문정왕후를 배경으로 횡포를 일삼는 경상도 安頤을 숙청하였으며 문정왕후의 명으로 인종의 태봉이 있는 산에 나무를 베 중을 처단하였으니 정계에 파문을 일으켰다.

문정왕후는 정종영을 잡아 숙청하려 했지만 성균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하고 三司 즉 사헌부, 사림부, 홍문관에서도 성균관의 편을 드니 문정왕후도 끝내 손을 들고 말았다.

이것은 당시의 모든 문헌에 수록되어 있고, 특히 그의 시기에 잘 밝혀져 있는데 시기는 숙종때 대제학과 좌찬성을 지낸 민복이 썼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행장을 심수광이 신도비문은 이단하가 썼다는 사실로도 그가 당시의 정계에 미친 비중은 짐작 할 수 있다.

그의 사망후 만장중에 대표적인 것은 좌의정 유흥과 한준겸의 것으로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동서분당의 인물이 파쟁을 반대한 인물을 찬양한 점이다. 정철등 예외의 인물도 있었지만 양파에서 모두 그를 찬양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정치적 술수를 모르는 공정한 관리였다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 할 수 있는 인품을 지녔던 것이다.

그의 검소하고 근면한 옷차림은 고관의 위풍은 나타내지 않았으며 남의 어깨위에 앉는 것을 싫어해서 가마를 타지 않았다니 계급적 봉건사회의 휴머니티한 귀족이라 하겠다.

을사사화때 김안국의 門下人이면서 난국을 무사히 넘길수 있었던 것은 을사년이 1545년으로 仁宗元年이며 明宗 즉 위년으로 명종이 즉위한 후 인종파를 죽이고 약 5년간 유학자를 숙청했는데 이사건을 을사사화라 하며 이때 33세인 그는 官界초기 시절로 당시 처숙인 유권을 첫번째로 숙청되고 그에게도 위협이 닥쳤으며 이러한 위협은 문정왕후가 별세한후 윤원형이 실각되던 명종 20년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마다 관계에서 일시 물러나거나 의직으로 쫓겨났을 뿐 별탈이 없었다.

그 이전에는 정종영과 윤원형에 얽힌 庶係 인척관계로 정종영의 조부 정윤겸에게 庶出의 딸로서 난정이 있었는데 그녀는 첩의 딸이기에 윤원형의 첩이 되었으며 윤원형 집권시 배후 인물이 둘이 있는데 누이 문정왕후와 첩 난정이었고 난정에게는 생모인 윤겸의 첩 南씨도 생존해 있었으며 이때에 정종영이 관계에서 활약하고 있어 明宗祖에 숙청되지 않은 것으로 심수광이나 이단하는 친운이었다고 말하지만 庶祖母인 南씨나 庶姑母인 난정의 활약도 컸던 것이다.

초계정씨 성묘기행록을 보면 을사사화때 팔계군(정종영)이 화를 입게되자 난정에게 우리증손이 화를 입으면 지하에 가서 어떻게 청계군(정윤겸)을 만나냐고 호소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난정 혹은 남씨의 도움을 받았대서 그들의 집을 출입하며 도움을 청한것은 절대아니다. 그것은 난정의 同腹 오라비 정담의 行狀등을 봐서도 알 수 있다.

公事見聞을 인용한 연려실기술의 明宗祖 故事本末 윤원형조에 보면 정담이 그 누이 난정이 화근이 될것을 짐작하고 소원하게 지내 청탁 왕래가 없었으며 사는집 입구에 꼬불꼬불하게 담을 쌓아 두경이 있는 가마가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난정이 가보지 못하였다고 쓰여져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와같이 윤원형과 친척이라면서도 멀리하였고 윤원형이 몇번이고 손을 잡을것을 청해왔으나 몇번이고 거절했다.

때문에 윤원형 집권 20년간 그가 받아야 했던 고충도 더욱 심했는데 明宗 20년 문정왕후의 별세와 동시 윤원형이 실각한후 부터그의 관운도 빛을 받아 중요 요직을 연임하게 되었다.

그가 팔계군으로 봉해진 강원도 관찰사 역임직후인 명종 12년의 일로서 윤원형이 실각되자 그는 이조참판으로 官界整理를 담당하고 명종 22년 明나라의 세종이 죽으니 진향사로 중국을 다녀 왔다. 그후 형조, 병조, 이조판서를 역임했는데 심의겸과 김효원간의 이조정랑의 자리를 놓고 동서분당이 시작되던 때로 심의겸과 김효원을 외적

으로 보내어 수습하려 했으나 여의치 못해 결국 이조판서이던 그는 武班에서 이조정랑 자리에 보하자는 의견까지 제출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했던 모양이지만 그는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 東西人이 다 불편해 했다.

아무튼 정종영은 검박하고 강직한 청백리였기 때문에 사망후에는 동서인 다함께 추모하였고 그가 좌찬성을 내놓고 관직을 떠날때 선조가 한강에서 송별연을 베풀니 역대에 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이분이 남긴 글을 몇편밖에 찾아볼수 없는 일이 아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유고(遺稿)를 임진왜란때 소실했다고 하니 정말 아까운 일이다.

그리고 그의 유언으로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후손에게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이 지방에 살고 있으니 지켜졌다고 할 수 있겠고 다음은 詩文을 탐하지 말라는 것으로 柳夢寅의 於干記에 실려 있는데 그것은 유학자로서 시문을 즐기면 道學을 경솔하기 쉽다는 뜻이라고 하니 사실 시문은 美를 추구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나 善을 추구하는 도덕과 다름을 볼때 그의 고귀한 성품을 엿볼수 있다.

정종영은 仁祖 16년 戊寅에 서원면에 있는 七峰書院에 제향하였다.

◎ 안삽교(安雪橋)

둔내면 삽교 3리 해발 800 m고지에 자리하고 살았다. 이 마을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정할 정도로 존경과 추앙을 받던 안삽교 선생은 1718년 충주 가흥(忠州 可興)에서 출생했다.

아버지 안중관(安重觀)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선생(先生)은 본 이름이 안석경(安錫敬)으로서 순흥안씨(順興安氏)이고 자(字)는 숙화(淑華)이고, 호는 완양(完陽), 삽교, 탁이, 산인 등으로 4개인바 그중 가장 애호하던 호가 역시 삽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세까지는 서울, 홍천, 제천, 원주 등지로 부친 안중관씨를 따라다녔다. 그러던 중 아버지 안씨가 벼슬을 버리고 안삽교선생이 10세

되던 해에 고향인 가흥으로 하향한후 8년간을 서울에서 살았다. 서울 살림은 가난했으며 이인좌의 난(亂)을 피할때까지 고난을 겪었다.

1736년에 아버지 안씨가 공조좌랑(工曹在郎)이 되어 상경한 후에는 16년간을 즉, 안삼교 선생이 34세 될때까지는 안정되고 평탄한 생활을 서울에서 보낼수가 있었다. 그후 3년간 아버지의 상을 치루는 역막 생활을 끝내고 원주 손곡리에서 잠간 살다가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로 이사온 후 여생을 끝마쳤다.

1767년인 49세에 안삼교 선생은 유림으로 천거 받았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1768년에 둔내면 삼교리에서 은거 생활을 시작하여 전답(田畓)을 일구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선생은 아버지인 안중관씨에게서 공부를 했고 뚜렷하게 수학한 스승은 없었으며 이병연(李秉淵), 김환(金煥) 선배들과 강론했었다.

학과로는 노론파에 소속했으나 독자적으로 학문을 수립했으며 파벌이나 당론(黨論)이 싫어서 벼슬을 포기한 정도이다.

특히 안삼교 선생은 힘이 장사여서 호랑이의 힘을 제압할만 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이면 글 읽으며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심신을 연마하던 중 이곳이 산골이어서 호랑이가 종종 나타나 마을의 개를 잡아 먹는지라 잘못하다가는 사람까지 해를 입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안장사야 그까짓 한주먹 밖에 안되니 애초 두려울게 없었으나 산마을 사람들에게 안장사가 이르기를 「호랑이는 짐승중에도 영특한 동물이니 먼저 사람쪽에서 손을 대지 않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항상 안심시켰다. 안장사의 이말은 상당히 주효해서 호랑이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장사가 지어준 주문을 외우면 없어 지곤 하는 것이었다. 아직은 그래서인지 호환(虎患)이 없었는데 어느날 밤 안장사가 변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호랑이(갈가지 큰 늑이라고도 한다)가 변소로 들어와 안장사의 엉덩이를 핥는것이 아닌가? 그는 짹짜게 호랑이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무릎에 끼고 앉아 불일을 보고 있으니 호랑이는 꿈쩍 못하고 용을 쓰는데 안장사의 나막신이 달각달각 소리를 냈다고 한다. 용변이 끝났을 때 거의 질식 상태의 호랑이를 변소에서 끌어내어 숲속으로 쫓아버렸다.

안장사는 영조대왕의 아들인 장현세자(莊顯世子)와 북벌의 대계(大計)를 가져 보았으리 만큼 뜻과 힘이 컸다. 그러나 영조의 미움을 샀던 세자의 뒤주속에서의 억울한 죽음과 영조마저의 죽음으로 뜻을 못이루고 초야에 묻혀 세상을 마쳤다.

그는 이태백(李太白)의 시와 두보(杜甫)의 시를 좋아했고 손오병가지서(孫吳兵家之書)에도 무불능통(無不能通)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안상교를 찾아 보라」는 말이 있도록 실로 백과사전 같은 두뇌의 소유자였다.

그는 또한 축지법(縮地法)을 쓰는 사람으로 횡성에서 서울을 하루에 갔다오기가 다반사였다.

안상교선생은 만년에 지방 농토개발과 산업 부흥에 힘썼으므로 죽은 후에 부락민이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의 인생관은 선비라면 당행지도(當行之道)가 있어야 되며 어떤 곤궁한 처지라도 자득지책(自得之策)을 가지고 천지간(天地間)에 부조리 없는 정도(正道)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저술한 만록(漫錄) 18편이 있다. 그의 만록을 통해 학문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는 그의 학문은 인간성을 긍정하는 내용이고, 둘째로 인간의 치부를 저술 했으며, 셋째로는 인간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한편, 그의 북벌론은 민족의 자주의식과 주체의식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의 주자학(朱子學)의 명분론을 부인하는 작품활동을 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도시의 거지들의 생활상과 상인들의 삶 그리고 벼슬(官士)하다가 낙향한 선비들의 생활상도 비판의식을 가지고 비유로서

종사했다.

◎ 김복이 (金福伊)

효부이자 열녀인 김복이 할머니가 덕고산 언덕배기를 넘어 꽃가마를 타고 정암리 도씨 (都氏) 문중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건 그의 나이 14살의 일이었다.

그의 친절은 원성군 소초면 둔둔리로 살기는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 편이었다. 그녀가 14살의 어린 나이로 도씨 (都氏) 문중의 도봉근 (都鳳根) 씨의 집에 시집 오자마자 남편은 덜커덕 자리에 눕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뽕술 창병이라며 그 사람은 이미 불건너 갔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들었다.

시부모는 며느리 마음은 아랑곳 없이, 며느리 잘못 들여 집안 망한다며, 남편 병든거나 자식 없는 (딸은 하나 있었음) 모든 죄를 며느리에게 뒤집어 씌우며 며느리에게 포탈을 부렸다. 그녀는 썩어가는 남편 가슴에 문창호지 심지를 손수 해 박고는 들기름에다 말거미를 넣어 만든 고약을 날이면 날마다 손수 갈아 붙였다.

5리가 실히 되는 서낭당을 찾아가 이제 그녀는 천지신명께 매일 같이 기도를 드렸다.

그녀에겐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낭당을 찾아 정한수를 떠 놓고 빌고 또 빌었다.

지독히 눈이 많이 내린 음력 11월 25일, 남편은 바싹 마른 팔을 두어번 내젓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을 잃은 그녀의 발길은 성황당이 아닌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옮겨졌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뚫고 그녀는 산을 올랐고, 여름날 장마비를 뒤집어 쓰며 그녀는 산을 올랐다. 그녀의 가슴속엔 허허로운 찬바람만 불어대고, 꼬던 손과 얼굴은 남편 대신 하는 집안팎 일

에 갈퀴처럼 억세어져만 갔다.

가혹한 운명의 신은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와 휘둘러 놓기 시작했다. 그렇게나 전장하던 시아버지가 어느날 장터를 다녀오다 풍을 맞고 말았다. 다음날부터 그녀에게 오장육부를 뒤흔들어 놓는 대소변 시중의 고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얼굴 한번 안짱그리고 시아버지의 손과 발이 되어 시중을 들었다.

그렇게 하기를 3년, 그녀는 열과 성의를 다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를 았았다. 그녀 시아버지가 사경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했다. 또 그녀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횡성 유도회와 군민이 뜻을 모아 그녀가 살던 집 뒤에 이미문(二美門)을 세워 후세 사람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 徐得天과 徐振鏞

안흥면 강림사성(講林四星, 가천리)에 가천세우(佳川細雨)와 가천팔경(佳川八景)의 옛 정취를 취할 수 있는 양지바른 언덕에 위치한 정문각(旌門閣)은 세기에 드물게 두 부자(父子)의 정문(旌門)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부(父)되는 서득천 효자(徐得天 孝子)와 자(子)되는 서진영(徐振鏞) 효자의 효행의 지극함을 기리기 위해 고종 임금이 내린 것으로서, 이천 서씨 후손들에게는 물론 인근 사람들에게 효의 귀감이 되고 있다.

부 되는 서득천 효자는 평소 부모님 섬기기를 하늘같이 극진히 모시었으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기도 하였으며 사후에도 3년을 하루같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그의 아들 서진영 효자는 아버지의 병세가 위중하여 온갖 약을 다 구하여다 처방하여도 효과가 없는지라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아 병세의 차도를 알아보았고 또 아버지가 잉어와 죽순을 먹기를 원함으로 눈이 쌓인 엄동설한에 하늘을 향하여 기원하니 하늘에서 잉어가 떨어

졌고, 또 하늘을 향하여 죽순을 구하지 못함을 통곡하니 홀연히 죽순이 솟아나 이를 가져다가 정성을 다해 다려드리니 효과가 있었다. 또 임종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아버지에게 수혈하니 연 4일을 더 연명하였고, 사후에도 피눈물이 나도록 3년을 울며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1904년(광무 8년) 12월 19일에 장례원(掌禮院)의 향신(鄉臣)이던 조정희(趙定熙)와 강원도의 유생들이 임금께 상장(上狀)을 하니 고종께서 두 부자(父子)를 정려(旌闕)에 명(命) 하시었고 그 정문각은 안흥면 강림 4성(가천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후 이천 서씨 후손들에 의해 단청과 조경으로 보존이 잘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烈女

烈女 元氏는 慶州金氏 光集의 처로서 그 남편을 섬기는 정성이 남과 달리 지극했으며 시부모를 모시는 일에 정성과 노력이 대단하여 시부모의 노여움을 사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농사일에 고달픈 남편을 위하여 그는 정성을 다해 남편을 모시고 웃음으로 남편을 격려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양육도 남달리 정성이 따랐다. 언제나 입은 의복은 깨끗하게 입혔고 몸가짐이 흐트러짐이 없이 단정하게 가르쳤다. 단란하고 화목했던 元氏부인 가정에 災殃이 떨어졌다. 중년인 남편이 졸지에 세상을 버리게 된 것이다.

남편의 신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사망하고 말았다.

원씨부인은 남편을 선산인 公根面 봉우재에 장사 지내고 시묘할 아들이 없으며 부인이 3년간을 봉우재 묘소에서 시묘를 살았다. 이때에 經帶는 풀지 아니하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시묘를 마치고 3년상을 지내고 난 元氏는 가족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사라졌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잠깐 이웃에 갔는가 하여 기다렸으나 밤이 깊어도 돌아오지 않아 불을 밝히고 갈만한 곳을 모두 찾아 보았으나

없었다. 마침 장마철이라 비는 쏟아지고 강물은 늘어 밤에 찾기에 힘은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가족들이 집이 가까운 강줄기를 살펴보던 중 부인의 신발이 언덕 위에 놓여져 있고 元氏는 없었다. 온 가족이 동원되어 강물을 따라 시체를 찾아 내려 갔는데 사구 막이에서 흐르는 강물과 학담리에서 흐르는 강물이 합류하는 덕촌리와 오산 합수지에서 시신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부인의 시체는 물결을 따라 구즌베루쪽으로 떠내려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물길을 거슬러 학담리 쪽으로 더 올라 가더라는 것이다. 이를 본 가족들과 주민들이 얼마나 평소에 따르고 사랑했으면 죽어서도 남편 곁으로 가고자 시체가 거슬러 올라 가는가 하며 모두가 애절한 눈물을 흘렸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자 유럽에서 원씨부인을 열녀로 추천하여 교지를 받게 되었다.

지금 烈女碑는 신을 벗어 놓았던 장소인 甲川面 大官垈에 소재하고 있으며 후손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 않다.

郷土の傳説

◎ 보리우물 전설

횡성읍 모평리 마을 한가운데 논에는 보리우물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옛날 이 우물은 물맛뿐만 아니라 만병을 고칠수 있는 효험이 있다 하여 인근 동네에서는 물론이고 소문을 듣고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다녀가고 했는데 쌍가마를 탄 높은 어른까지 이 우물을 다녀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해 백년 이내엔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흉년이 찾아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보릿고개 넘기기가 세상 그 어느 험한 고개보다도 높고 험하다고 했는데 그해의 흉년에 비하면 평소의 보릿고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소나무 껍질과 뽕뿌리를 찾아 산이라고 생긴데는 발이 부르뜨도록 헤메였으며, 여기 저기서는 영양실조에 얼굴이 누렇게 뜨고 퉁퉁 살이 부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털썩털썩 짚단 쓰러지듯 쓰러져 갔다.

그때에 이마을에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은 한 아주머니가 문전걸식을 하며 이마을에 나타났다.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세상이 온통 흉년으로 그 지경이니 인심이고 뭐고가 없었다. 이웃사촌도 녀석 할때 이야기지 서로가 자기 살궁리를 위해 눈이 새빨개진 판국에 거지와 다름없는 그 아주머니에게 밥 한 술 먹어 보라는 사람이 없었다. 내리쬐는 6월의 태양 아래에서 벌써 몇일째 곡기를 잃어 버린 어린아이는 울힘도 없다는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굶기는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다. 사람이 사나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 아주머니는 일주일째 볼만 먹고 버터온지라 이제 눈에 보이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가야 좀 참아라. 이제 이 에미가 맛있는 고기국을 끓여 줄께!」「마늘 파를 송송 썰어 개장국 기름이 좌르르 흐르는 곰탕을 실컷 먹어 줄테니까」 정신이 완전히 돌아버린 아주머니는 헛 소리를 중얼거리며 보리우물가에 앉아 등에 업은 사랑하는 자식을 내려서는

서서히 개를 잡듯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울 힘조차 없는 어린아이는 순식간에 어미의 손에서 축 늘어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떠나고 말았다.

자식을 죽인것도 모르는 이 아주머니는 정말로 개를 잡듯 자식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는 불을 막 놓으라고 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나무에 매단 아이를 풀어 봤지만 이미 그때 그 어린아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완전히 돌아버린 그 아줌마는 악을 쓰며 고기를 내놓으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 들었다.

「얼마나 배가 고했으면 제 자식이 고기로 보일까?」

이 광경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힘에 어찌지도 못하는 그 아주머니는 연실 「내고기 내고기…」라고 외쳐대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후부터 이 우물은 이상하게도 그토록이나 신호하던 약효가 없어지고 평범한 우물로 바뀌었다고 한다.

말 못하는 우물이었지만 너무도 애절한 사연과 자식조차도 몰라 보는 인간의 또다른 면에 실망을 하고 신호한 기운이 멀리 떠났다고 한다.

지금도 이 우물은 사철 마르는 법이 없으며 요즈음에는 이 우물에 다 관정을 설치해 가물때 모퉁리 넓은 들을 시원하게 적셔 주고 있다.

◎ 까막나들이 전설

옛날 이곳 영영포리 앞 개울가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깊은 소가 있었는데 얼마나 깊었는지 주먹만한 명주실 꾸러미가 다 풀려도 바닥까지 닿지를 았았다 한다. 이 깊은 소 주위는 몇백년은 족히 된 아름들이 버드나무가 뻑뻑히 들어차 있어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가 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곤 하였다.

영영포리 마을에는 옛날 담이 크고 힘이 장사인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물론 이름도 성도 알수 없었지만 그의 전설같은 힘과 용기에 많은 사람들은 혀를 내 둘렀다고 한다.

어른이 채 되기전인 열서너살 나이에 가을 타작마당 벗가마 정도는 「꽝」 소리한번 내지르면 어느새 등에 번쩍 올라가 집 안으로 날라지곤 하였다. 인근에서 황소타기 씨름대회가 벌어졌다 하면 아무리 힘센 자라도 심여분을 못 견디고 모래판에 주저 앉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담이 어찌나 큰지 어릴적 한밤중 공동묘지에 가 말뚝을 박고 오는것은 보통이었다. 어느날 그는 이웃마을에서 밤 늦도록 놀다가 밤이 으스스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친구들과 막걸리 추렴으로 몇사발 얻어마신 술기운에 시원한 갯바람이 술술 불어오니 기분이 하늘을 나를듯 했다.

그는 왕방울 같은 굵은 목소리로 소물이 소리를 구성지게 내 뿜으며 이 까막나들이 소를 지나치게 되었다.

칙칙한 어둠 사이로 반딧불이 꺾벼거리고 버드나무 숲에서는 후투티 한 마리가 어둠밤을 걸어 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가 버드나무 숲을 막 지나 치려는데 키가 구척이나 뒹직한 검은 물체가 툭 튀어나와 그를 가로 막았다. 아마 그 상황에서 웬만한 담약한 축들은 그대로 기절을 했으리라. 그는 그러나 조금도 놀라지 않고 걸음을 멈춰 괴상한 녀석을 바라 보았다.

「이봐 네가 이곳 인근에선 힘 꽤나 쓴다는 녀석이냐?」

「허허 그놈 주둥이 한번 고약하다. 헛바닥이 반토막이나. 네놈은 다짜고짜 반말 짓거리냐」

「난 이곳 까막나들이에 살고 계시는 도깨비니라, 내 네가 힘 꽤나 쓴다는 소문은 벌써부터 듣고 네놈과 한번 겨루어 볼려고 오래전부터 별러온 터였다.」

「그놈 도깨비치곤 배짱 한번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 시험이라면

다 좋다. 술 먹기 내기라면 말술 아니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힘겨루기라면 황소 정도 베곤을 수 있는 정도라면 나한테 덤벼 보렴」

「과연 소문대로 배짱 하나는 든든하구나. 좋다 씨름으로 승패를 겨루자」

「이녀석 어리석은 도깨비야 네가 뭘 잘못 안 모양이로구나. 아직 씨름에서 내 앞에서 이겨 본자가 없는걸 너는 모르는구나」 「좋다이놈 너 오늘 혼쭐 나 봐라」

드디어 도깨비와 그 장사는 서로의 허리를 잡고 씨름을 시작했다.

어릴적부터 씨름판이라면 이끌 난 그라 속으로는 은근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도깨비의 허리를 바삭 잡아 쳤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도깨비 녀석은 등치도 등치였지만 힘 또한 대단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땅위에 놓은듯 그 녀석은 꼼짝을 안했다. 사실 놀라기는 도깨비도 마찬가지였다. 꿈 소릴 내며 두 발에 힘을 주고 버티신 그 장사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태산이었다.

이런 싸움을 두고 용호의 대결이라고 그랬었나 보다. 어느 누구도 조금도 양보없이 들이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상대방을 허리춤을 붙잡은 채 그렇게 버티고 서서 밤을 꿰고 있었다.

섯블리 안다리 걸기니, 밧다리 채기니, 호미걸이와 같은 수를 걸었다가는 순간의 헛점으로 당장 수를 쓴자가 나가 떨어질 판이었다.

짧기만한 여름밤이 이쪽 사정은 나물라 하며 새벽을 향해 출달을 쳤다. 이제 서서히 몸이 달기 시작하는건 도깨비 쪽이었다. 캄캄한 밤이나 도깨비는 힘을 쓰지 날만 밧았다 하면 도깨비는 맥을 못추는 것이었다. 맥을 못추는 정도가 아니라 도깨비의 수명은 밤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똥끝이 났다. 몇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들이는 그림처럼 한곳에서 상대방을 붙잡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건너편 가래울 뒷산에 히끄뜨레 날이 밝아오며 선잠 깬 장닭의 목소리를 길게 뽑아 올리자 도깨비는 사색이 되어 장사에게 애걸을 했다.

「이봐 날좀 봐 주게. 내일밤 다시 하기로 하구 오늘은 그만두세」

「이너석 안돼. 한번 남자가 칼을 뽑았음 승부를 내야지」

「아이고 제발 날좀 살려주게. 저 건너편 가래울 산에 먼동이 터오면 난 끝장이란 말일세 -응」

「안돼. 기권은 없어. 죽든지 살든지 결판을 내야지」 도깨비의 약점을 알아차린 장사는 바짝바짝 궁지로 몰고 갔다. 이윽고 도깨비는 장사 허리춤에서 손을 빼고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내 이 보따리를 다 줌세. 평생 써도 남을 보물들일세」 그는 못이기는체 하며 도깨비를 놔 주었다.

「좋아 정 그렇다면 한번 놔주지. 그렇지만 이것은 꼭 약속을 해야 보내준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추후에 인간들에게 시건방진 내기 따위를 걸어 괴롭히진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약속은 한다. 정말 정말이다」

도깨비는 그 소리가 끝나자 마자 숲을 빠져 어둠속으로 어디론가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도깨비가 주고 간 검은 보따리를 열자 그곳에는 진기한 보물과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다. 도깨비와의 내기 씨름으로 얻은 상금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액수였다.

그후부터 사람들은 그 소 이름을 「까막나들이」라 부르게 됐는데 지금 소는 장마에 메꾸어져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버드나무만이 몇그루 그당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 주려는듯 갯바람에 흔들거리고 있다.

◎ 말바위

횡성읍 정암리 황피울이라는 동네에는 바위의 생김새가 마치 말처럼 생긴 큰바위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가르켜 말바위라 부르는데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에 이곳에 원씨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부자를 가르켜 원장자 어른이라고 높여 불렀다.

그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지금까지 그 집터에 남아있는 방고래 돌과 담을 쌓았었다는 돌의 규모만 보아도 짐작이 가고 남는다.

자연히 집안이 번성하고, 살림이 느니 그집에는 일년 삼백 예순날 손이 끊일 날이 없었다. 옛날에 부자집하면 하루에도 상을 열두번 차려야 부자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집은 열두번은 고사하고 집안의 여자들이 잠시도 방안에 앉아 있을 틈이 없이 별의별 손님들을 맞아야 했다. 이집 여자들의 소원은 단 한가지 그저 죽을 먹어도 좋으니 하루 한나절이나마 배짱 편히 구들장에 누워 있는게 공통적인 바램이었다. 더군다나 이 동네는 옛날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국도가 통과하는 마을이라 자연히 별 불일 없는 길손들도 이집 규모를 보고 찾아와 하룻밤 신세를 지자고 매일 저녁 해거름이면 찾아 들곤 했다.

특히 이집 며느리의 불만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명색이 부자집 며느리라면 곱게 단장하고 방안에 들어 앉아 적당히 세월이나 보내는게 보통이지만 이집만은 그렇지 못했다.

「사람의 집에는 사람이 불비어야 되느니」라며 시아버지 되는 원장자는 손님접대에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그 부인이든 고하를 막론하고 여자들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어스름이었다. 괴상한 차림을 한 초라한 행색의 웬 노인이 이집 문을 기웃거리며 하룻밤 신세지기를 청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집 사랑방마다 많은 길손들이 꽉 들어차 있어 남는 방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 노인은 겨우 사정사정을 하여 사랑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집 여자들은 대포집 기본 안주를 깨다리 소반에 밥 한술 떠 담아 들이밀며 푸념을 했다.

손님들이 많이 꼬여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 이야기를 방 한구석에서 듣던 그 노인이 밥상을 내주며 지나가는

소리로 그집 여자를 향해 한마디 했다.

「복에 겨운 애기들이군. 그래 아-사람사는 집에 사람이 꼬이니 이게 복이지 뭐람…」

「복 좋아하시네. 그런 복 우린 신물이 나도록 겪었으니 영감이나 가져 가슈」

「못하는 말들이 없구만, 아녀자들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 글썄 우린 손님이라면 두손 다 들고 두발까지 다 들었다고요. 제발 부탁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손님 안오게 할 방도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어요.」

「정말이요?」

그 괴상한 노인은 몇번이나 다짐을 받은 다음 바람에서 돌을 깨는 정을 꺼내더니 밤중에 집뒤에 있는 바위로 올라갔다.

얼마후 쩡쨍 산을 울리는 돌깨는 소리가 들리고 그 밤으로 노인네는 행방을 감추었다. 식구들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니 원장자네 집 용마루에는 난데없는 시뻘건 피가 사방에 튀어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괴이하여 집뒤에 있는 바위에 올라보니 바위에는 어른 주먹만한 구멍들이 열개가 나란히 뚫려 있었으며 구멍마다 빨건피가 흘러 내리고 있었다.

그후로 부터, 그날밤 외양간에 매어 두었던 부림소가 갑자기 살을 맞아 죽는가 하면 멀쩡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쓰러졌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집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더니 얼마 안가서 장자네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더니 마침내 그집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갔다. 그후 그집은 폐가가 되어 오랜 세월 비바람속에 모습을 잃어 갔으며 근년에는 집터에서 기왓장과 주춧돌, 방고래 돌만 굴러다니고 큰집은 흔적도 없어졌다. 지금도 그 집터 뒤 말 바위에는 어른 주먹 크기 정도의 구멍이 뚫어져 있으며, 그후에 이 마을 사람중 누군가가 끊어진 혈을 되살려 보려고 했음인지 구멍

마다 시멘트를 발라 메워놓고 하는데 비바람에 몇해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다시 뚫어져 있다.

◎ 대지울의 전설

옛날 이마을에는 멀리 경상도에서 온 떠꺼머리 총각이 한 사람이 흘러 들어왔다. 물론 이름도 성도 몰랐으며 사람이 배운것은 없어도 매우 성실하고 근면했다. 누구에게나 불임성이 있었으며 한번 약속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마는 책임감 또한 매우 강했다.

그리하여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품이 있지만 사람하나 보고 마을에서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너도 나도 그에게 샅일을 시켰다.

그러다가 어느집에 딸만 하나 두고 어렵게 농사를 짓던 과수집이 있었는데 그집에서는 새경을 후하게 출터이니 아예 와서 머슴으로 있으면 어떻겠느냐고 총각에게 제의해 왔다. 총각으로서도 하루품 파는것 보다는 안전성이 있고 또 내손으로 손수 밥을 끓여 먹지 않는게 좋을것 같아 선뜻 승락을 하고는 그길로 그집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총각은 내일이려니 생각하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피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일손이 모자라서 동네에서 늘 팔찌로 농사일을 하던 그집은 총각이 들어온 뒤로는 순서가 바뀌어 모든 농사일을 제일 먼저 하였다. 그집 사람들도 그 총각을 머슴이라 생각하지 않고 같은 식구처럼 대해줬다.

인연이 될려고 그랬던지 그날 이후로 그집 딸의 마음은 비록 집안이고 출신이고는 알지 못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인간 됬됨에 끌려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은근히 둘이서 로를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마을 사람들은 아예 둘을 짝을 지어 주는게 어떻겠느냐고 수근거렸다.

과수택 입장에서든 용모나 사람됨이 어느 한군데 나무랄데가 없는 지라 선선히 승락을 하고 날을 받아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여 내집 일처럼 총각의 혼사 일을 돌보아 주었

다. 잔치날은 너나 없이 마을의 경사라며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었다. 밤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가슴 들뜨게 하는 첫날밤이 둘에게 찾아왔다. 아직까지 여자라고는 먼 발치에서도 가까이 대해 본적이 없는 총각으로서 가슴이 너무나 두근거리며 몸을 가눌수가 없었다.

이윽고 떨리는 총각의 손에 의해 족두리가 벗겨지고 치마 저고리가 수줍은 색시의 몸에서 벗어져 내렸다.

신방을 엿보는 극성스런 아낙네들은 한 장면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발돋움을 해 창문을 뚫고 들여다 보느라고 정신들이 없었다.

어떻게 일을 치렀는지 색시는 기억이 나질 않았다.

어느때쯤 났나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색시의 온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고 신랑은 그 옆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색시는 말이라도 건네려고 옆에 누운 신랑을 흔들어 깨웠다. 그런데 신랑의 몸이 좀 이상했다. 색시가 흔드는 대로 나무토막 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색시는 기겁을 하고 불을 켜고 신랑을 자세히 보았다.

그때 이미 신랑은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색시는 너무나 기가 막혔다. 그렇게도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소리 한번 못지르고 세상을 떠나다니 색시는 어머니를 깨워서 대책을 의논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한 두 모녀는 정신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고 야단법석이 벌어 졌다. 의논끝에 그리 좋은 일도 아닌데 날이 새기전에 아무 곳이나 묻자고 합의를 본 후 사람들은 부랴부랴 밤중에 신랑을 뒷산에 묻었다.

첫날밤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내고는 언젠가 신랑이 살아 있을 적에 일러 주었던 남편 고향마을을 한번 찾아가 보리라 맹세를 한 색시는 그길로 즉시 경상도를 향해 출발했다.

길을 물어 물어 경상도 땅에 도착한 새색시는 남편집을 찾게 되었다. 남편의 집은 생각한 대로 초라하고 불품이 없었으며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날밤 단 한번의 관계로 새색시

는 임신이 됐다. 열달후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자가 태어났다.

그 아들은 날때부터 머리가 총명하여 마을 사람들로 부터 신동이
라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성
들여 키우고 교육시켰다. 타고난 재능과 어머니의 정성으로 그 아
들은 마을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과거에 급제하여 큰 출세를
하였다.

출세한 아들은 유명한 지관을 앞세워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
는 아버지의 묘를 찾으려고 하였다. 아무렇게나 묻고 표를 해는묘
는 쉽게 찾을수가 없었다.

얼마나 애를 쓰며 찾다가 마침내 그 묘를 찾게 되었는데 그동안
별관리를 안해 온터라 그 무덤은 묵묘나 다름 없었다.

출세한 아들은 좋은 자리에다 훌륭한 묘를 만들려고 이장을 하려고
지관에게 좋은 자리를 봐 달라고 하였다.

「하-! 이런 명당이 다 있다니 대감어른 이곳이야 말로 천하명
당자리가 대감을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감과 어머니는 이장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있
는 그대로 놔 두기로 하였다.

그후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대지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무난동의 전설

옛날 횡성 안흥에는 이찬종이란 청년이 살고 있었다. 본시 천성이
어질고 착한데다 심성이 곧고 부지런했으며 효성 또한 지극 하였다.

워낙 가난한 살림을 물려받아 어렵게 살았지만 그는 마을 앞에 있
는 폐허의 땅을 부지런히 일구고 가꾸어 그가 일군 들판에는 오펜이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피땀흘린 댓가와 자연의 섭리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더욱더 열심히 일해 가세는 점점 윤택해 지고
화목한 가정에서는 웃음꽃이 항상 피어 났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다.

그는 매우 신기한 꿈을 꾸었다.

키가 9척이나 되며 백발수염을 드날리며 신선이 구름에서 내려와 한바탕 너털웃음을 웃고는 그를 불렀다.

“여봐라 찬종아—”

그 청년은 생전 처음보는 노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릴 듣고는 깜짝 놀랐다.

“예...”

“내 너의 착한 효심에 감동하여 네 앞길을 열어주려 왔느니라. 부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예 신선님.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공손히 절을 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잠시후 정신을 차려 신선을 바라보니 신선의 얼굴에선 휘황찬란한 광채가 하늘 끝까지 뻗쳐 눈이 부셔 도저히 쳐다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신선님, 신선님 부디 저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 주소서—”

젊은 청년은 진심으로 그렇게 신선에게 말하였다.

“그럼 내말을 잘 듣거라. 오늘부터 사흘 뒤 동쪽으로 100리를 가면 날이 저물게 될것이다.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날테니 그 사람의 지시를 잘 받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신선은 “핑” 소리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 청년도 꿈을 깨고 말았다. 그 청년은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의 지시대로 한번 따르기로 작정하고 사흘 뒤 길떠날 준비를 한후 신선이 얘기해준 대로 동쪽을 향해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가도가도 점점산중에 인적없는 험한 산을 몇번이나 넘고 넘어 울창한 숲속을 정신없이 걸다보니 어느덧 해는 녀녘녘 서산으로 지고 칙흑같은 캄캄한 밤이 다가왔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 살펴봐도 인가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산골이라 청년은 걸음을 빨리하여 밤을 지새울 때를 찾아 왔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산짐승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청년은 두려움과 공포속에 더이상 견지 못하고 커다란 나무를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난데없이 숲속에서 청아한 새울음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아! 저건 난조(鸞鳥)로구나!”

난조는 금빛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청년의 심금을 울리며 구성지게 울어대고 있었다.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모두 잊어 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난조를 따라 그도 같이 어깨춤을 쳤다.

난조는 젊은이를 인도 하려는듯 앞서서 춤을 추며 자꾸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청년은 완전히 넋을 빼앗기고, 난조가 이끄는 대로 숲속으로 자꾸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갑자기 숲속 저쪽에서 희미한 등불이 비치는 인가가 보였다. 그 청년은 오막살이에 가까이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몇번을 거듭 부르자 방문이 살며시 열리며 방에서는 금방 하늘에서 내려 온듯한 선녀 만치나 아름다운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십니까? 이 밤중에……”

아니! 지금에야 오시는군요. 얼마나 기다렸더구요. 어서 들어오세요.”

선녀도 저리 아름다울 수 있으랴…

그 청년은 정녕 꿈 같게만 느껴졌다.

“꼭 오늘밤에 오실줄 알았읍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세한 사연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사오니 누추하지만 어서 방으로 드세요.”

청년은 귀신에 홀린듯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방을 들어섰다. 방에는 산해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져 있었다.

그 여인은 청년의 손을 이끌고 아랫목에 앉힌다음 섬섬옥수를 들어

향기 그윽한 술을 한잔 따랐다.

“찬은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술은 저와 백년가약을 맺는 술입니다. 힘과 슬기가 용솨음치는 신선주예요.”

청년은 신선주를 마시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온몸에서 힘이 솨왔다.

“저는 선비님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배운것도 아는것도 없사오나 앞날을 보는 안목은 좀 있습니다. 부디 이 미친한 여인의 말을 꼭 따라 주시면 무한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오늘밤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은 저와 함께 가셔서 선비님을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도록 하세요. 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시면 후에 꼭 대성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비단이불을 까는 것이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룻밤이 지나갔다. 다음날 그 청년은 여인이 인도 하는대로 숲속을 따라 들어 갔다. 숲속에선 온갖 아름다운 새가 다 모인듯 고운소리로 노랫 불렀고, 숲속은 가히 무릉도원 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 오더니 사흘전 바로 꿈속에서 만난 신선이 나타났다. 그 청년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신선님의 고명하신 가르침을 받으려 미친한 것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허허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래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

“예- 분골쇄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냐 잘 알았다.”

그러면서 신선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계곡 아래로 휘 던졌다.

계곡 밑은 천야만야한 절벽이었다. 아래를 내려다본 청년은 오싹 현기증이 났다.

“신을 찾아 오너라”

그 청년은 죽을 힘을 다해 절벽을 타고 내려가 신발을 찾아 올라

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들고있는 지팡이를 잡으라 하였다. 젊은이가 그 지팡이를 잡자 지팡이는 땅속 깊이 쇠기둥이나 된듯 꼼짝달싹을 안했다.

한나절이 다가도록 지팡이를 잡고 힘을 썼지만 그 지팡이는 요지부동이었다.

“됐다 됐어 그 용기 그 인내라면…….”

“이제부터 내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라.”

“예 ”

그날부터 청년의 뼈를 깎는 각고의 훈련이 시작됐다. 물론 아름다운 아가씨는 그가 신을 찾아 왔을때 이미 종적을 감추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고 검술, 궁술, 도술, 병서공부에 정진했다.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이제 젊은이에게 세상 어느 누구도 대적치 못할 문무를 겸한 도인이 되었다.

“이제는 더이상 가르칠게 없다. 세상에 나가 의와 참을 위하여 칼을 빼거라. 절대로 의와 참이 아닌곳에 인격과 양심을 팔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또한 세상에 나아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도록 하여라. 어서 가거라 어서…”

“예 은사님 한사코 은사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정들었던 산을 내려왔다.

얼마만치 걸었을까. 드디어 인가가 하나 둘 보이고 마을이 나타났다. 참으로 오랫동안에 보는 풍경이 아닐수 없었다.

그 청년이 감회에 젖어 막 동네로 들어 섰을때, 동네 어디쯤에선 지 처절한 여인네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직감으로 웬지 좋지 못한일이 일어 날것이라 생각하고 울음소리를 쫓아 발걸음을 옮겼다.

시냇가에서 가냘프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슬피 울며 빨래를 하고 있

었다.

“여보시오. 아가씨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리 슬피 우는지 그 까닭이나 알아봅시다.”

그러나 그여인은 들은척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다. 거듭 청년이 간청하니 울먹이며 그 여인은 말을 이었다.

“저는 이마을 김진사댁 고명딸입니다. 얼마전 부터 이 마을엔 무서운 산적이 나타나 약탈을 일삼으며 마을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산적들은 워낙 수효가 많고, 두목이 무예의 고수라 관군들도 몇번이나 토벌 하려다 대패하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밤 저를 그 무서운 산적이 강제로 빼앗아 아내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저희 마을을 축발으로 만든다고 했으니 어쩔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내 기어이 흉악무도한 산적을 쳐 부수고 아가씨를 구해 드리리다.”

“혼자서 그 많은 산적을……

말씀은 고맙지만 안되실 말씀이세요”

“걱정마세요. 자 그럼 내 다녀 오리다.”

청년은 축지법으로 한걸음에 산적의 소굴에 다다랐다.

제아무리 날고 기는 무예의 고수라 하나 신선으로 부터 훈련받은 도인의 경지에 든 그 청년에 상대가 될리 만무했다.

한시간도 안돼 흉악무도한 도적들은 청년의 정의의 칼 앞에 모두 굴복하고 말았다. 이 소식은 바람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퍼졌고, 그 청년이 마을에 다다랐을때 김진사 고명딸이라던 아가씨는 버선발로 쫓아나와 그 청년 품에 안겼다.

“아니! 이게 누군가 3년동안 꿈에서도 못잊을 그 산에서 만났던 여인이 아닌가”

“대성 하셨군요. 저예요. 저를 똑바로 보세요. 흑-흑”

모든 마을사람들은 모두 내일처럼 기뻐했고 곧이어 마을사람들은 두

젊은 남녀의 백년해로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 정말 청년에게 있어서는 꿈속 같기만한 나날들이 아닐 수 없었다.

소문은 온나라에 퍼져 마침내 그 청년은 임금에게 까지 불리어 나가 대장군이 되었다.

이 찬증 장군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악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치고 요순시대보다 더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몫을 했다.

그후부터

이런 사연이 있는 후부터 사람들은 이 마을을 난조가 춤을 추며 청년을 인도했다 하여 무난(舞鸞)이라 불렀으며, 이 마을이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 무난동(舞鸞洞)이다.

◎ 허명천(許命天) 장군과 용마(龍馬)의 무덤의 전설

허명천 장군은 흥천군 좌운 허씨 문중에 사람으로 힘만 장사가 아니라 학문에 능통하여 문무를 갖춘 장군이였다.

허명천 장군이 강릉지방에서 관현으로 실무하다가 득병하여 사망하게 되자 자손들이 강릉에 가서 장군의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돌론 좌운에 있는 선산에 지관을 들여 묘소를 잡고 산역을 모두 마쳐 놓고 다음날 동네 장정들이 상여를 메게 되었다.

그런데 괴이한 일이 생겼다. 상여를 멘 젊은 장정들이 상여를 메고 일어서기는 했는데 발을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십여명의 젊은 장정이 발을 떼면 상여 머리가 산역을 마쳐 놓은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힘이 쏠리고 그곳으로 상여가 장정들을 인도하는 꼴이 된 것이다. 상제들이 수 없이 절을 하며 산역한 묘소로 상여가 가도록 해도 모두가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상주와 장청 그리고 문중 사람들이 의논을 했다. 괴이한 일이니 상여를 메고 상여에 힘이 쏠리는 방향으로 따라가는데까지 가 보자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 결과 허명천장군의 시신이 인도 하는대로 좌운을 떠나고

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추동리까지 왔는데 상여가 추동리 앞산을 넘으려고 앞산에 올라서니 상여에 쏠리던 힘이 없어지고 천근같은 무거움을 느끼자 그 자리에 상여를 내려 놓고 한참 쉰 뒤에 장정들이 다시 상여를 들었으나 들리지 않아 그곳이 장군의 묘자리로 알고 그 앞산에다 장사를 지냈는데 이때 장군의 용마가 묘소를 찾아와서 죽었다.

이 부락 사람들은 장군의 묘소를 찾아와서 죽은 용마의 충성을 높이 여겨 허장군의 묘소 앞에 장사 지내고 이 무덤을 용마무덤이라 이름하였다.

그후 웃마을 전촌에는 힘센 역사인 전(蒸)장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허명천장군의 묘자리가 명당자리임을 탐하여 그 자리를 빼앗고자 묘소 옆 우물에다가 고양이를 잡아 술항아리에 넣어서 고양이를 물어 놓아 석도록 했다.

몇달이 지나서 좌운 허씨 문중 사람들이 장군의 시신을 이장하고자 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물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어느날 밤 자손들이 잠을 자는데 장군이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내 머리 밑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견딜수가 없으니 나를 이장하되 시신이 인도를 할것인즉 인도에 따라 이장하라고 현몽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중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장하려 왔다고 했다.

이후로 지금은 추동 앞산에는 묘소자리만 있을 뿐 아무런 유적이 없고 허명천장군 묘소는 흥천 선산에 있고 사당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추동 앞산에는 용마 무덤만이 외롭게 남아 있을 뿐이다.

◎ 대문동(大門洞)과 복성정(福星亭)의 전설

갑천면 중금리에는 자연부락명으로 대문동이라는 촌락이 있는데 동쪽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동산과 웅장한 산이 둘러섰고, 서쪽 남쪽으로는 마을 중 최고의 기름진 옥토의 전답은 산간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평화스러운 농가 백여호가 모여서 자못 부촌을 자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곳 대문동은 지금으로부터 4백 30년전 전국에서 손꼽는 부자로서 그 부력을 천하에 떨치던 진양(陳央)이란 사람의 가대(家垓)였다.

대문동이라 부르는 곳은 조선 초엽의 거부 진양의 집 큰 대문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대문동이라 주민들이 부르고 있다.

진양의 집중 본채는 대문으로부터 무려 7백미터나 떨어진 곳에 웅장하고 화려한 고루거각의 집이었고, 대문과 본채 양편에는 노비 하인들이 사는 주택이 연결되어 울을 이루었고, 정원에는 화단과 연못이 축조되어 있어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꽃과 녹음 속에서 연일 주연과 유흥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한다.

진양은 성품이 온순했으며 재력이 있다하여 가난한 사람이나 타인을 억압하거나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한다.

대문동으로부터 약 3km정도 떨어진 경치좋은 곳에는 복성정이 있는데 이곳이 진양의 별장이었다. 진양이 이 복성정에 머물며 유학(遊學)을 즐길때면 음식물을 본가로부터 운반하였다 하는데 노비 3백여명이 노상에 한줄로 늘어서서 제주식으로 손에서 손으로 음식물을 운반하여 식사를 했다 하니 그 위세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때 어느 정객이 진양의 재물을 탐하여 진양을 진왕으로 별명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예나 지금이나 소문처럼 빠른것이 있겠는가. 국왕(國王)에게 밀고하여 일국(一國)에 두왕이 없거늘 진양이 평민으로서 왕의 행세를 하며 백성을 괴롭힌다고 하니 왕(王)이 대노하여 극형에 처하고 말았다.

그후 재물은 일순간에 없어지고 가문이 몰락되어 화려하고 웅장했던 건물마저 퇴락 붕괴되어 한때의 호화찬란했던 호강도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

진양의 하인들이 떠나면서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를 건립하였는데 관리 소홀로 땅속에 매몰되었던 것이 부락민의 손에 의하여 복성정 부근에서 발굴되었으나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홍수에

유실되고 말았다. 옛날 진앙이 낚시를 즐겼다는 독지대가 부동마을 좌편 강가에 자리하고 있으나 지금은 수심이 매몰되고 하상이 높아져서 낚시하는 사람도 없다.

◎ 장독바위의 전설

갑천면 부동리에 전해오는 전설로 구전(口傳)에 의하면 년대와 성명을 알 수 없는 큰 부자가 부동(釜洞) 장독바위가 있는 자리에서 살았다.

부자집 뒷산에는 효험이 좋은 약수가 있어서 각종 질병 환자들이 병을 치료하고자 봄부터 시작하여 음력 7~8월까지 찾아 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당시만 해도 갑천 부동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몇 호 밖에 되지 않았고 가난하여 침식을 할 수 없으니 자연 집이 크고 부자이니까 이 집으로만 사람들이 모여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부자집의 주부들과 하인들은 손님 접대하는 일로 하루 해를 어떻게 보낸 것인지도 알 수 없도록 바쁘고 고달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봄부터 음력 7~8월까지 바쁨과 고달픔이 연일 계속되는 실정이니 주부들이 화가나고 지쳐버렸다.

여름철 어느날 이 부자집 대문 앞에 탁반 스님이 찾아와서 시주를 청했다. 큰 며느리가 나가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부처님께 공양할 시주를 청하러 왔다고 이야기 했다. 큰 며느리는 시주는 얼마든지 할 것이니 소원을 풀어 달라고 청했다. 스님은 큰 며느리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말했다. 큰 며느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집 뒷편 산에 약수가 있는데 이 약수가 모든 질병에 효험이 좋다는 소문이 퍼져 봄부터 각 지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음력 7~8월까지 손님에 문혀 편히 월날이 없어 살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스님은 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난처한 안색을 하며 방법

은 있으나 가르쳐 드리기가 매우 난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큰 며느리는 스님에게 즐랐다. 많은 시주를 받은 스님은 큰 며느리에게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다짐하여 물으니 큰 며느리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스님은 다음과 같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는 가버렸다, 그 방법은 개를 잡아 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 가족을 약수 바위 위에 덮어 놓고 쌀 3되 3홉을 놓고 절을 하라고 했다.

이 부자집의 큰 며느리와 일하는 여인들도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를 않았다. 사람이 오지 말아야 개를 잡고 피를 뿌리고 가족을 약수 바위에 덮어 싸우고 절을 할 것인데 연일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하루 이틀 날이 지나서 초가을이 되어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하게 되자 사람의 왕래가 뜸해졌다.

큰 며느리는 날을 받아 하인들에게 개를 잡으라고 시켰다. 큰 며느리는 개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 가족을 약수가 나오는 바위에 덮어 싸우고 쌀 3되 3홉을 담아 놓고 절을 하는데 첫번 절하고 두번 절하고 세번째 절을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고 검은 구름이 용트림을 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대줄기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개물물이 늘며 때아닌 음력 11월에 장마가 시작됐다. 산골짜마다 황토물이 쏟아져 내려와 강으로 모이니 부동강은 차서 독이 넘쳤다. 마침내 장마물은 이 부자집을 흔적도 없이 쓸어가고 말았다. 곧 사람만 남기고 집과 모든 재산을 남김없이 쓸어간 것이다.

장마가 멈추고 물이 준 뒤에 부자집 큰 며느리는 자기 집이 있던 곳을 바라보니 고래등같은 큰 집이 있던 자리는 강물이 흐르는 물길이 되어 물이 흐르고 그 물 가운데 우뚝 남아 있는 것은 장독대로 사용하던 장독바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많던 논과 밭은 다시는 농토로 가꿀수 없는 강변 돌밭으로 변하고 강바닥이었던 곳은 농토로 개간할 수 있는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후 이 가족은 어데론가 떠나고 지금 남아있는 장독 바위는 부동에서 삼거리로 건너가는 부동교에서 아래쪽으로 약 50 m 떨어진 물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바위 위의 넓이는 2평 정도 된다.

◎ 원 탑(圓塔)의 전설

公根面草院2리에 上下垞란 마을 입구에 있는 것으로, 둘레가 10 m 높이가 3 m되는 촛대 모양이며 부락민의 정성이 담긴 탑으로서 부락민이 직접 쌓았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 탑은 1880년에 부락민의 公議에 의하여 쌓아 졌으며 이 탑을 쌓은후 부터는 이 부락이 부자가 되었으며 매년 塔神祭를 한번씩 지내며 주민의 안녕과 무고를 빌었으나 해방 이후부터는 塔神祭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같은 탑을 주민들이 세우게 된 까닭은 다음과 같다.

100여년 전에 이 부락의 洪氏 집안의 부인의 제의에 의해서인데, 그 여인은 현몽에 의한 啓示였다고 전한다.

그 여인이 洪氏 집안으로 시집오기 전에는 이 마을이 그렇게 가난할 줄은 몰랐다. 전하는 말로는 상하터는 굼기를 밥먹듯 하는 곳이었지만, 무던한 곳이라고만 들었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면 모두들 귀하게 길러온 딸을 주지 않을 뿐더러 비록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딸은 그런 가난한 고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이다. 이러한 마을에 사람들은 모두가 부자 행세를 하고 싶었다.

晴日面에서 시집온 흥씨댁 며느리는 어려서 운택한 가정에서 자랐고 시댁이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줄은 몰랐다. 시집온지 사흘만에 밥 대신 죽을 끓여야 하는 실세가 된것은 믿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살림 형편을 친정에서 알면 얼마나 근심할 것인가를 늘 근심하였다.

그러나 이마을 사람들은 가난에 쪼들려 살면서도 이상하리 만큼 명랑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했다.

새댁은 이런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의심이 생겼다. 조용한 잠자리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그 원인을 물어 보았다. 남편은 이곳은 땅도 나쁘지 않은데 해마다 풍수의 피해가 많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니 이것은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없고 그저 晴運에 맡기거나 자연의 눈치나 볼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때 새댁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럼 이곳을 모두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이곳은 조상들이 수십대를 살아오고 조상의 뼈가 묻힌 곳이라 떠나다니 안될 말이었다. 그날밤 남편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댁은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겨우 자정이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새댁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시집 온지 몇일이 못돼 살아갈 걱정 뿐인가. 상하대 마을이 왜 가난하게 사는가 하면, 그건 풍수설로 보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도 않지」

새댁은 노인의 옷자락에 매달려 그 방법이 무어냐고 물었다.

노인은 말대신 고개만 저었다. 쉽사리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새댁은 만일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노인을 못 떠나게 하겠다고 옷자락을 붙들고 울면서 애걸을 하였다.

옷자락을 놓으라니 못간다느니 얼마를 승경이를 하다가 노인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가르쳐 주지」하면서, 「상하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허전해서 못사는 것이니 입구에 둥근 돌담을 양편에 세워 놓으면 틀림 없이 그해부터는 풍년이 들어 부자마을이 될 것이요」 하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새댁은 흠뻑 땀이 젖어 있었다. 노인을 붙들고 었느라 애를 썼기 때문이었다.

새댁은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남편은 이장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부자집 만며느리처럼 복스럽게 생긴 새댁의 꿈 이야기는 당장 마을 회외에 붙여져 그날부터 온 주민이 돌을 날라다 둥근 돌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원탑은 세워진 연유로, 조각한 것이 없이 그저 주민의 노력과 정성으로 돌 한개 한개가 쌓여졌을 뿐 無刻 無銘한 둥근 탑이 되었고 그해부터 풍수해가 없는 부자마을이 되었다는 유래를 가지고 있다.

황성향토사료집 (제 2 호)

인 쇄 : 1988. 5. 30

발 행 : 1988. 5. 30

발행처 : 황 성 문 화 원

편집처 : 황 성 문 화 원 편 집 실

인쇄처 : 성 광 사

비 매 품

